민주, 한덕수 인준 부결 카드 꺼내나

한동훈 후보자 불가론 고수
대통령 협치 메시지 없어
의총 열고 총리 인준안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부적격 판정을 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움직임을 구체화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기점으로 부결 기류로 조금씩 쏠리는 모습이다. 다만 당내 논의 상황에 따라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방향을 논의한다.

총리 인사청문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총을 거치며 인준안 부결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본다"며 "전관예우를 받은 부적격한 후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면 몰라도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며 "부결을 막아 보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부결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국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으로도 풀이된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다 맞춰줘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 총리 인준이 불발된다면 '총리 없이' 내각을 출범하겠다며 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민주당도 양보하지 않고 '강 대 강' 대치를 불사할 수 있다는 태세도 감지된다.

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인준 통과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표결 자체에 불참하는 방안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부터 국민의힘과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선다.

대통령 취임을 기점으로 부결 기류가 강해지는 상황이나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를 강제로 떨어뜨릴 경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총을 열고 지선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다음 당 지도부가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가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키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도 고심거리다. 총리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부결을 주도한 당은 정국 파행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어, 실제 부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한편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도 고수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한동훈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총장 때야 문제가 있는 인사를 요직에 앉혀도 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그래선 안 된다.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추경 당정 협의 참석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강진군수 무공천…전현직 군수 무소속 대결

이승옥 후보 재심 신청 받아들여
강진원 후보 공천 무효화

더불어민주당이 강진군수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 애초 경선에서 승리한 강진원 전 군수의 심각한 후보 배제사유가 발견된 데 따라 후보 선정을 취소하고 해당 지역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따라, 전·현직 군수가 무소속으로 본선 경쟁을 벌이게 됐다.

11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비대위는 이날 강진군수 선거구에 대한 무공천 방침을 확정하고, 기존 경선에서 승리한 강진원 후보에 대한 공천을 무효화했다. 비대위는 이승옥 후보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후보 교체를 결정한 중앙당 공천 재심위원회 판단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중앙당 재심위원회는 강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가 발견돼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비대위에 통보한 바 있다.

강 후보는 경선 전인 지난달 25일 강진의 한 식당에서 여성 유권자들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한 남성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여성에게 전달하고, 그 모습을 쳐다보는 강 후보의 장면이 식당 폐쇄회로TV에 찍혀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강 후보 측은 자신과 관계없는 행동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해당 선거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기존 강진군수 후보로 나섰던 오병석 전 농림부 차관보는 불출마하기로 했고, 서채원 후보는 이승옥 후보를 지지한 만큼 본선 대결은 이승옥 현 군수 대 강진원 전 군수 간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6·1 지방선거 라운지

강기정 "광주에서 희망의, 필승의 바람 만들겠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공천장을 받았다. 강 예비후보는 공천장을 받은 뒤 승리 결의 발언을 통해 "광주에서 희망의 바람, 필승의 바람을 만들어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역사를 혁명했던 광주에 더해 내 삶을 혁명하는 광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고 시민들의 삶을 당당하고 빠르게 변화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강 예비후보는 1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본선 행보에 나선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영록 "단합된 힘으로 민주당 저력 보여 주겠다"

김영록 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11일 후보 공천장을 받고 "단합된 힘으로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주겠다"며 승리의 각오를 다졌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민주당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공천장을 받고 " 전남에서 시작된 희망의 불꽃이 충청, 경기·서울을 넘어 경상·강원까지 들불처럼 번져 대한민국에 타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남의 단합된 힘으로 강한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김이강 서구청장 예비후보 '2만 보 현장 소통' 시작

김이강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1일 "2배로 더 듣고, 2배로 더 뛰겠다는 각오로 '2만 보 현장 소통'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소음과 근거 없는 네거티브, 줄세우기식 인력 동원 형태의 낡은 선거 문화를 바꾸겠다"면서 "경청과 정책,조용하지만 강한 선거운동 혁신을 위한 첫 번째 행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서구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건강·복지 정책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접수한 정책제안 및 시민의견, 민원들을 모아 공약에 반영하는 한편, 구청장 취임 후 공직자 및 전문가 TF팀을 꾸려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신수정 광주시의원 예비후보, 사회복지 공약 발굴 나서

신수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북구3) 예비후보는 11일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광주북구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정책 간담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공약 발굴에 나섰다.

신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 복지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북구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복지, 노인복지, 정신건강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환경복지, 범사회복지 분야별 18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복지정책으로는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저소득층 청년 대상 경제적 자립 지원 서비스 ▲시장형 노인일자리 확대 지원 ▲청소년증 이용 확대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증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이 제안됐다.

그는 "품격 있는 생활을 높이는 복지가 이 시대에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제안하신 좋은 의제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다양하게 마련해 시민들에게 공감되는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자 cki@

민주당 광주 동남을 지방선거 후보자 '5대 공통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11일 제8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장 전수식을 갖고 지역주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5대 공통공약을 발표했다.

5대 공통공약은 광주의 원도시가 위치한 광주 동남을 지역구의 경제, 청년과 어르신의 일자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관광 등에 대한 발전방안과 미래비전을 담았다. 이날 발표한 5대 공약은 ▲지역경제 르네상스 원년 실현 ▲청년이 만드는 꿀잼도시 광주 원도심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을만들기 ▲여성·장애인·어린이가 행복한 마을 ▲문화예술 관광산업의 모델도시 조성 등이다. 이 자리에는 이병훈 지역위원장과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홍기월·박미정·박희율 광주시의원 후보들과 기초의원 후보들이 참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80억, 호텔/ 무인텔 매매 교환

• 전남 화순군 도곡온천 내
• 대지 2980평, 건물 1270평, 계획관리
• 건물 3동, 객실 52개, 관광호텔 허가 有
• 요양(병)원, 콘도, 리조트, 연수원 등 업종 변경가
• 법인체 양도양수가, 수도권 토지와 교환 가

주인 직거래. 010-3605-5000

21억, 신안동 대지, 매매

• 광주 북구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10층, 72호실)
• 타용도 변경가, 회사 사정상 매매
• 현, 주차장 영업 中

문 의. 010-3605-5000